

제4절 효부(孝婦)와 열녀(烈女)

1. 효부(孝婦)

1) 조선시대

- 김씨(金氏)

참봉(參奉) 최영청(崔永淸)의 처이고, 그의 효행에 대하여 조정(朝廷)에서 정려(旌閨)를 명(命)하였으며, 군(郡)의 북쪽에 정려각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유실되어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다.

-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상락(上洛)으로 김두화(金斗和)의 딸이고, 남응진(南應鎮)의 처다. 김씨가 결혼 전에 이미 시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였으므로 시집에 입문(入門)하여서는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하였고, 이불을 깨끗이 하여 냄새가 나지 않게 하였으며, 아침저녁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였다. 4년 후에 돌아가시니 예를 다하여 장사를 치렀고, 또 시아버지를 봉양하는데에도 정성을 다 바치니, 향리에서 효부라 하였고 종종에서 표창하였다.

-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김녕(金寧)으로 김두완(金斗玩)의 딸이고, 식와(植窩) 이원소(李元韶)의 처다. 효성이 지극하였고, 시어머니가 자주 병을 앓았기 때문에 집 뒤에 단(壇)을 쌓고 밤마다 하늘에 빌었다. 정성이 효험을 보여 80여 세까지 오래 살게 되니, 사람들이 이를 김씨의 효행 덕분이라고 하였다.

-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청풍(淸風)으로 영월인(寧越人) 엄계한(嚴啓漢)의 처다. 시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고 모든 음식을 뜻에 맞도록 공양하였다. 시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이 들어 손발 마디에 종기가 나고 그것이 터져 악취가 진동하였으나 거동할 때와 식사할 때 항상 부축하여 10년을 하루 같이 봉양하였다. 시아버지가 임종 때에 다시 눈을 뜨고 “너의 효도가 지극하니 내가 죽어도 한(恨)이 없다.”고 하였다. 돌아가신 후에는 장사범절(葬事凡節)을 슬픔으로 극진하게 하니, 군수가 포상(褒賞)하였다.

• 김씨(金氏)

지광운(池光雲)의 처로 시아버지께 극진히 효도하였고, 맛있는 음식을 구하여 공양하니, 인근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어사 권준(權峻)이 비단과 고기를 상으로 주었다.

•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김해(金海)로 김호흡(金顥欽)의 딸이고, 경주인(慶州人) 이하소(李河韶)의 처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5년 동안 누워 있을 때, 가난한 집안을 꾸리며 극진히 간호하였는데, 꿈에 신령이 나타나 말하기를 “너의 정성이 지극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니, 그곳에 가면 인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곳에 가보니 과연 인삼 두 뿌리가 있었다. 그것을 시부에게 공양하니, 고을 사람들은 효도가 지성스러워 소원을 이룬 것이라 하였다.

•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김녕(金寧)으로 김인성(金仁聲)의 딸이고, 담양인(潭陽人) 전강유(田岡柔)의 처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집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었으나 온갖 힘을 다하여 섬겼고, 맛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공양하였으며, 손님 접대에도 성심을 다하니 고을 사람들이 효부라 불렀다.

• 남씨(南氏)

본관(本貫)은 영양(英陽)으로 남병시(南炳時)의 딸이고, 김녕인(金寧人) 김병대(金炳臺)의 처다. 시부모를 봉양함에 있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뜻에 따라 극진하였으며, 시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으로 앙다리가 맥이 끊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10년 간 하루도 빠짐없이 대소변을 받아내니, 사람들이 모두 효부라 불렀다.

• 손씨(孫氏)

황재신(黃載信)의 처로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시아버지가 광병(狂病)이 들어도 봉양을 극진히 하였다. 광병에 걸린 시아버지가 의복의 장단(長短)을 순서 없이 꾸려 청하여도 그 실정에 따라 명(命)에 응하였고, 나무젓가락을 만들어 항상 시아버지의 대변을 맛보고 병의 증세를 알아서 간호하니, 그로부터 3년을 더 살게 하였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효성의 결과라 하였고, 사림(士林)에서 여러 번 관(官)에 청하였으나 포상을 받지는 못하였다.

• 송씨(宋氏)

본관(本貫)은 은진(恩津)으로 송처인(宋處寅)의 딸이고, 이윤언(李允彦)의 처다. 남편이 일찍 죽으니 시아버지를 봉양할 사람이 없어 따라 죽지 못하고, 더욱 효도를 다하였다. 이후

시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 상례를 다 마치고 나서 남편이 죽은 날에 순절하니, 사람들이 효 열부(孝烈婦)라 하였고, 선비가 지은 행장이 있다.

• 전씨(田氏)

본관(本貫)은 담양(潭陽)으로 전정석(田井錫)의 딸이고, 영양인(英陽人) 김상일(金相鎰)의 쳇다. 남편이 임종 때에 전씨에게 유언하기를 “늙은 모친이 계시니 잘 섬겨 달라.” 하였는데, 전씨가 같이 죽으려 하였으나 시어머니가 늙고 봉양할 사람이 없어 죽지 못하였다. 이후 시어머니가 담질(痰疾)로 걷지 못하게 되니, 거동할 때 항상 부축하였고, 또 단을 만들어 일주일간 밤을 새워 하늘에 빌었더니, 꿈에 한 거인(巨人)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태백산 신령으로 그대를 위하여 제단(祭壇)에 약초를 심었다.”고 했다. 기이하게 여겨 가보니 과연 이 상한 풀이 있어서 이를 파내어 드시게 하였더니 병이 나았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효부라 하였다.

• 전씨(全氏)

본관(本貫)은 용궁(龍宮)으로 전각순(全珏純)의 딸이고, 안동인(安東人) 김수하(金壽河)의 쳇다. 일찍이 남편을 죽었을 때 남편을 따르려고 하였으나 시부모가 계시므로 생각을 바꾸어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니, 사람들이 효열(孝烈)이라 하였다.

• 전씨(田氏)

본관(本貫)은 담양(潭陽)으로 강릉인(江陵人) 김학기(金學起)의 쳇다. 혼례를 치르고 7일 만에 남편이 죽으니, 상여를 불들고 울면서 장차 후손(後孫)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3일 후에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애통함을 더하였다. 그리하여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생각하여 시아버지께 간청하여 새로 어머니를 얻게 하여 남아를 얻었으니, 사람들이 효열(孝烈)이라 칭하였다. 관에 청하였으나 따로 정려(旌閨)를 받지는 못하였다.

• 정씨(鄭氏)

본관(本貫)은 봉화(奉化)로 정운학(鄭運學)의 딸이고, 밀양인(密陽人) 박영숙(朴永淑)의 쳇다. 시아버지의 병이 날로 심해지자 단(壇)을 쌓아 하늘에 빌었고, 시아버지가 거동이 어려워 누워서 대소변을 보게 되니, 하루에도 5~6회씩 씻으며 7개월 동안이나 간호를 하였다. 그리하여 유림이 관청에 그 효행에 대한 표창을 추천하였다.

• 조낭자(曹娘子)

본관(本貫)은 창녕(昌寧)으로 아버지는 조명룡(曹命龍)이고, 어머니는 열녀(烈女) 영해

박씨(寧海朴氏)이다. 딸 조낭자가 16살 때 모녀가 함께 이질(痢疾)로 심하게 앓았는데, 어머니가 더 심하여 목숨이 경각(頃刻)에 이르렀다. 이때 함께 앓던 낭자가 어머니 모르게 일어나서 손가락을 끊어 그 피를 어머니에게 주혈(注血)하고, 하느님께 자기가 대신 죽을 것을 원하며 벌었더니 10시간 후에 어머니가 회복되었다. 조정(朝廷)에서 이 사실을 알고 1750년(영조 26)에 정려(旌閭)를 명(命)하였으며, 현재 온정면 덕인리의 어머니 정려각(旌閭閣) 안에 비석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 주씨(朱氏)

본관(本貫)은 신안(新安)으로 주각양(朱珙陽)의 딸이고, 영양인(英陽人) 김원근(金源根)의 처다. 평소 시부모에게 효도가 지극하였으며, 시아버지가 7개월 동안 담종(痰腫)을 앓고 있을 때에 항상 입으로 뺄아서 치료하였다. 또 시아버지가 우연히 꿩 우는소리를 듣고 주씨에게 꿩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주씨가 “내 정성으로 어찌 이를 행할 수 있겠는가!”하고 탄식하였는데, 마침 독수리가 꿩을 추격하여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으므로 이를 잡아 공양하였더니 병이 쾌차(快差)하였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도저히 장사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주씨가 하늘을 향해 통곡하였더니, 조금 뒤에 비가 멈추어 무사히 장사를 치렀다. 그 후 채전(菜田)에 꿩이 엎드려 있기에, 시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던 것을 생각하고 주씨가 이를 잡아 제수(祭需)로 하니, 사림(士林)에서 효부라 하였고, 그 행적이 『삼강록(三綱錄)』에 기록되었다.

• 주씨(朱氏)

본관(本貫)은 신안(新安)으로 주경청(朱景淸)의 딸이고, 영양인(英陽人) 남도년(南道季)의 처다. 가정이 빈곤하였으나 성심성의를 다하여 시부모를 섬기고 효도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 주씨(朱氏)

본관(本貫)은 신안(新安)으로 주우석(朱佑錫)의 딸이고, 전배유(田培柔)의 처다. 출가한 지 2년 만에 남편의 상(喪)을 당하여 극진히 상례를 다하였다. 집이 가난해 일생동안 방직(紡績)을 하여 시부에게 효도를 하였으며, 마을을 떠나지 않으니 사림(士林)에서 칭송하였다.

• 황씨(黃氏)

본관(本貫)은 평해(平海)으로 황중곤(黃中坤)의 딸이며 김녕인(金寧人) 김형필(金炯弼)의 처다. 20세 때에 남편을 잃고 따르려 하였으나 시부모가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애석하게 여겨 자기의 불편함을 생각지 않고 효도를 다하니, 사람들이 효열부(孝烈婦)라 하였고, 면과 동

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 황씨(黃氏)

본관(本貫)은 평해(平海)로 숭정처사(崇禎處士) 황식(黃湜)의 5세손 황규(黃奎)의 딸이다. 13세 때에 어머니 상(喪)을 당하였는데, 애통해하기를 어른과 같이 하였다. 그 후 장대익(張大翼)의 집에 시집가서 80세의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니, 그 효성이 지극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황씨를 효부라 하였다. 또 친부(親父)가 병이 들어 하루 만에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친가에 가니 벌써 입관을 한 상태였다. 급히 관을 열고 손가락을 베어 주혈(注血)하니, 다음날 아침에 다시 눈을 떴고, 그로부터 11년을 더 살았다.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출가한 뒤에도 친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더라.”라고 하였다. 향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써서 관(官)에 올렸으나 따라 포상을 받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 황씨(黃氏)

본관(本貫)은 평해(平海)로 선비 황봉래(黃鳳來)의 딸이고, 손상경(孫相慶)의 처다. 나이가 채 20세가 되기도 전에 남편이 병이 들었을 때, 자기가 대신하기를 하늘에 빌었으나 결국 일찍 죽고 말았다. 그 또한 남편을 따르려고 하였으나 시부모가 극구 만류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시어머니가 병이 나서 3년 동안 앓고 있을 때에도 역시 자기 몸으로 대신할 것을 하늘에 비니, 고을에서 효열이라 하였고, 선비가 지은 행장이 있다.

• 황씨(黃氏)

본관(本貫)은 평해(平海)로 황중곤(黃中坤)의 딸이고, 이재(履齋) 이의준(李毅俊)의 증손인 이상태(李相泰)의 처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애통하여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였으나 시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생각을 바꾸었고, 고통을 참아가며 성심을 다하여 봉양하니, 향리 사람들이 효열부라 하였고, 포장을 받았다.

• 황씨(黃氏)

본관(本貫)은 평해(平海)로 황석화(黃錫和)의 딸이고, 인암(麟菴) 이의홍(李毅弘)의 증손 이상석(李相奭)의 처다. 어질고 지조가 있어서 출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으니, 자신도 따라 죽으려 하다가 생각을 바꾸어 시부모를 극진히 섬겼는데, 이로써 시아버지가 안심하였고, 종종에서 표창을 하였다.

2) 근·현대

• 곽씨(郭氏)

본관(本貫)은 현풍(玄風)으로 참봉(參奉) 곽안석(郭安碩)의 딸이고, 영양인(英陽人) 남윤(南昀)의 처다. 시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고 공양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있어 조금의 거슬림도 없도록 노력하였다. 또 시아버지 임천공(臨川公)이 늙어서 이가 빠져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곽씨가(나이 65세가 되어서도 젖이 나왔다고 함) 매일 아침 계단 아래에서 절하고, 마루에 가까이 가서 시아버지에게 젖을 주어 수명을 연장시키니, 향인들이 그의 효행을 칭찬하였다.

•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김해(金海)로 탁영(濯纓)의 김일손(金駟孫)의 후손 김학규(金學奎)의 딸이고, 파평인(坡平人) 윤용기(尹龍璣)의 처(妻)다. 나이 17세에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지성(至誠)으로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였다. 시아버지가 일찍이 병이 들어 비둘기 고기를 원하였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던 중 우연히 하늘에서 매가 나타나서 돌다가 숲에서 비둘기를 치어 던지고 날아갔다. 이를 가져와 국을 끓여 드렸더니 병이 차도가 있었다. 또한 시어머니가 중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니 왼손 무명지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주혈(注血)하니, 다시 깨어나 5년을 더 살았다. 1926년 3월 울진군수가 준 표창장과 효부비문(孝婦碑文)이 남아 있다.

• 남씨(南氏)

본관(本貫)은 영양(英陽)으로 남태연(南兌季)의 딸이며, 담양인(潭陽人) 전성수(田聖秀)의 처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시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였다. 1907년 정미(丁未) 의병 봉기 당시 시아버지가 가담하였는데, 일본 병사가 집에 찾아와서 시아버지를 해치려고 하니 남씨가 시아버지 위에 엎드려 모진 매를 다 맞고, 죽을 힘을 다하여 구하니 일본군이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 민씨(閔氏)

본관(本貫)은 여흥(驪興)으로 민재호(閔在鎬)의 딸이고, 영양인(英陽人) 남이도(南履道)의 처다. 조선 고종 을묘(乙卯)년²⁷¹에 그의 남편이 과거에 불합격하고 병이 들어 귀가하였는데,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부인이 단(壇)을 설치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청수를 떠놓고 하늘에 치유를 빌었다. 그러나 8년 후인 1887년 정해(丁亥)년에 결국 운명하게 되

271. 을묘(乙卯)년은 서기로 1855년이고, 이 때는 아직 고종이 즉위하기 전이다. 8년(햇수로는 9년) 후가 정해년(1887)이라 하였으나, 아마도 기묘(己卯)년, 즉 1879년의 오기(誤記)로 생각된다.

자, 손가락을 끊어 주혈(注血)함으로써 3일을 더 연명하게 하였다. 남편이 죽자 음식을 먹지 않고 죽어서 같이 묻히고자 하였으나 가족들이 강력히 만류하므로 차마 죽지 못하고 홀로 빈 소를 지키며 애통해 하였다. 또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시아버지가 다리의 종기(腫氣)로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민씨가 매일 주야로 종기독을 뺏아냄으로써 다행히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그 후에 또 등창이 나므로 매일 3번씩 뺏아내어 마침내 완치되었다. 이처럼 민씨의 병간호가 지극하니 고을 사람들이 칭송하였고, 봉산(鳳山) 남목영(南穆永)이 지은 행장이 있다.

• 최씨(崔氏)

본관(本貫)은 강릉(江陵)으로 최석육(崔錫育)의 딸이고, 청송인(靑松人) 심천범(沈天範)의 처다. 평소 시부모에 대한 효도가 극진하였고 남편을 존경하였는데,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스스로 머리를 빗지 못하므로 매일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겨드렸다. 또 시아버지가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최씨가 집에서 기르는 개[犬]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너를 기르니, 내가 원하는 꿩 한 마리를 구하여 오너라.”하니, 며칠 후에 개가 꿩을 물어왔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꿩을 잡아와서 봉양하였다. 시부(媿父) 상(喪)을 당하여는 남편이 여막을 짓고 묘를 지켰으며, 최씨(崔氏)는 시아버지가 생시(生時)에 좋아하던 음식을 장만하여 아침저녁으로 상식상(上食床)에 차렸다.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1890년 (고종 27)에 부부에게 정려(旌閭)를 명(命)하였고, 현재 북면 두천리에 정려각이 남아 있다.

• 흥씨(洪氏)

본관(本貫)은 남양(南陽)으로 홍광석(洪廣碩)의 딸이고,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追贈)된 삼적인(三陟人) 김철중(金哲中)의 처다. 평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 시어머니가 노환으로 자리에 누워 노루고기를 먹고 싶어 했다. 흥씨가 매일 지성으로 하늘에 빌었더니, 어느 날 맹호(猛虎)가 노루를 물고 마당에 두고 갔다. 그리하여 고기로 국을 만들어 공양하였고, 또 닭고기를 원할 때는 마침 닭장사가 왔기에 이를 구하여 공양하였다. 그 후 남편이 이질을 앓게 되었을 때에는 병세를 알기 위하여 대변의 맛을 보고 약을 썼다. 또 친가에 자손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자식이 생기도록 향불 자료를 마련하여 주기도 하였다. 고을에서 효부라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1890년(고종 27)에 정려(旌閭)를 명(命)하였고, 현재 북면 부구리 산 638에 정려각[김철중 처 남양흥씨 비각]이 남아 있다.

• 황씨(黃氏)

본관(本貫)은 평해(平海)로 황영하(黃永河)의 딸이고, 강릉인(江陵人) 최진곤(崔鎮崑)의 처다. 시아버지는 절름발이고, 남편은 간질병 환자였으며, 가세가 몹시 가난하였으나 시부모

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였다. 시어머니의 임종 시에는 손가락을 끊어 주혈(注血)하였고, 남편의 병을 간호할 때에는 단(壇)을 만들어 정성으로 하늘에 비니, 향리사람은 물론 인근 마을에 서까지 칭송이 자자했다. 또 1937년 7월 20일 대홍수 때에는 가족을 피신시킨 후, 병든 남편과 시아버지자를 구조하려 나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하였으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나 홀로 살아남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을 건너다가 가족 4인과 함께 익사하니, 이 때 황씨의 나이가 39세였다. 후에 이에 대한 『의부전(義婦傳)』이 발간되었다.

2. 열녀(烈女)

1) 조선시대

- 곽씨(郭氏)

사직(司直) 정이(鄭爾)의 처로 출가하여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생활하였는데, 어물과 육고기를 먹지 않았고, 때때로 좋은 음식물이 생기면 반드시 저장하였다가 제사 때에 쓰기를 80여 세까지 한결같이 하니, 관청에서 가상히 여겨 삼베와 식량을 보내주었다.

- 권씨(權氏)

본관(本貫)은 안동(安東)으로 권언향(權彦鄉)의 딸이고, 장호선(張好善)의 처다. 시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였으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삼베옷을 입고 나무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며, 춘하추동의 계절마다 의복을 만들어 묘 옆에서 태웠다. 3년이 지나서는 추울 때나 더울 때에도 초하루와 보름에는 반드시 묘에 가서 곡(哭)을 하였고, 늙어서는 나물과 과실을 먹지 않고 병중에도 약을 먹지 않으면서 “나는 가벼운 여자인데, 어찌 건실(健實)로 살아가리요.”라고 하며 일생을 마쳤다.

- 귀옥(貴玉)

노덕신(盧德信)의 처로 조정에서 열녀(烈女)의 행적을 듣고 정려(旌閨)를 명(命)하여 고을 북쪽에 정려각(旌閨閣)을 세웠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삼척(三陟)으로 김흥시(金興時)의 딸이고, 장효권(張孝權)의 처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 스스로 자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시어머니가 나를 믿고 있으니 어찌 하루라도 섬기지 않겠는가.”라 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남편의 묘에 가서 땅을 뚫고 엎드려 곡(哭)하니, 사람들은 그곳을 열부굴(烈婦窟)이라 하였고, 그 집을 열부가(烈婦家)라 하

였다. 군수가 그 집에 들려 표창장을 전하고 상을 주려 하니, 고부(姑婦)가 함께 받지 않으려 하고 “죄가 많아서 지금 죽어도 죄가 남는데, 어찌 포장을 받으리요.”라고 하면서 재삼 사양 하니, 군수가 문으로 나가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한집에 정열(貞烈)이 모였다.”라 하고 효성 문(孝成文)을 지으니 세상 사람들은 삼세열부(三世烈婦)라 하였다.

•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김녕(金寧)으로 김진원(金震元)의 딸이고, 장희덕(張希德)의 처다. 남편의 병이 위독하여 지성으로 탕약을 썼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는데, 3년 동안을 하루 같이 슬퍼하니, 사림(士林)이 이를 포장(褒狀)하였고, 관청에서 상(賞)을 주었다.

• 김씨(金氏)

선비 권문발(權文發)의 처로 남편이 병이 들자 단(壇)을 모아 하늘에 기도하였고, 남편이 사경을 헤매자 손가락을 끊어 주혈(注血)함으로써 3일간 수명을 더 연장하였다. 그 행실로 향교의 표창을 받았다.

•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삼척(三陟)으로 남혁지(南赫智)의 처다. 14세에 결혼하고, 16세 때 세배하러 친가에 갔다가 갑자기 남편이 위독하다는 부음(訃音)을 듣고 달려가 보았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후에 친가에서 개가하라고 하자 친가와의 왕래를 끊고 흰옷을 입었으며, 유언에 따라 남편의 상에 관(棺)을 쓰지 않았으니, 내가 죽어도 관을 쓰지 말라고 하였으며, 포상도 받았다.

• 남씨(南氏)

본관(本貫)은 영양(英陽)으로 남순화(南舜和)의 딸이고, 파평인(坡平人) 윤황(尹晃)의 처다. 남편은 문장이 뛰어났으나 일찍 죽으니 선비들이 모여 장사를 치렀고, 남씨는 스스로 뒤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시어머니가 계시므로 죽지 못하였다. 후에 시어머니가 별세하고, 생가(남편의 생가) 시부모도 모두 돌아가시니 슬퍼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1년 후에 죽었다. 무릇 16년 간 소식(素食)하고, 목욕도 하지 않으며, 머리도 빗지 않고, 하늘의 해도 보지 않았으며, 가까운 친정에도 가지 않았으니, 이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 남씨(南氏)

본관(本貫)은 영양(英陽)으로 유학(幼學) 안성문(安聖文)의 처다. 남편이 죽자 시신을 안고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따라 죽으니, 순조(純祖) 때에 정려(旌閭)를 명(命)하였고, 현

재 기성면 정명리에 정려각이 있다.

• 박씨(朴氏)

본관(本貫)은 영해(寧海)로 박상하(朴尙夏)의 딸이고, 창녕인(昌寧人) 조명룡(曹命龍)의 처다.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므로 손가락을 두 번이나 끊어 그 피를 남편의 입에 주혈(注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 조정에서 그의 행적을 알고 1749년(영조 25)에 표창하고 정려(旌閭)를 명하였고, 현재 온정면 덕인리에 정려각이 있다.

• 서씨(徐氏)

본관(本貫)은 달성(達成)으로 서덕태(徐德泰)의 딸이고, 장진혁(張振赫)의 처다. 남편이 5년간 병석에 누워있을 때, 오목주 화사판을 얻어 술에 담가서 계속 복용하도록 하여 병이 나았다. 또 남편이 뇌종병이 들어 사경에 이르자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을 밤낮으로 하늘에 빌었다. 이에 감응(感應)하여 종기가 완치되었고, 남편의 수명을 연장하였다고 한다. 1643년(인조 21)에 조정에서 정려(旌閭)를 명(命)하였고, 현재 북면 부구리에 정려각이 남아 있다.

• 안씨(安氏)

본관(本貫)은 순흥(順興)으로 안고의(安高義)의 딸이고, 담양인(潭陽人) 전병호(田炳昊)의 처다. 남편이 병이 들자 항상 목욕재계하고 하느님께 낫기를 빌었으나 끝내 구하지 못하고 상(喪)을 당하였다. 임신 중이라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였고, 장례를 치르고 예를 다하였으며, 한 달 후에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놓고 순절(殉節)하니, 사람들이 열녀(烈女)라 하였다.

• 우씨(禹氏)

본관(本貫)은 단양(丹陽)으로 황월찬(黃月贊)의 처다. 일찍이 남편 상(喪)을 당하여 스스로 죽고자 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이루지 못하다가 목욕재계 후 스스로 죽으니, 조정에서 그 사실을 듣고 정려(旌閭)를 명(命)하여 정려각(旌閭閣)을 세웠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윤씨(尹氏)

본관(本貫)은 파평(坡平)으로 윤행윤(尹行倫)의 딸이고, 신안인(新安人) 주국조(朱國朝)의 처다. 출가하여 5년 만에 남편이 병을 얻었는데, 약을 썼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끊어 그 피를 주혈(注血)하였으나 끝내 구하지 못하고 죽었다. 윤씨도 스스로 죽고자 하였으나 아이가 어려 죽지 못하였고, 어린아이가 성장함을 기다리며 그 시부모를 뒤로하더니 갑작스럽게 아이마저 죽고 말았다. 윤씨가 항상 천연스럽게 지내더니 어느 날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서 가래를 뱉으니 그것이 모두 피였으며, 결국 몸이 쇠약해져 죽으니 향리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 이씨(李氏)

본관(本貫)은 평창(平昌)으로 해주인(海州人) 오출섭(吳出燮)의 처다. 혼례를 치르고 3일 째 되던 날에 남편이 죽고 말았는데, 이씨가 남편의 시구(屍柩)를 따라가다가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지 않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물을 삼키고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권하며 심신을 안정시켰다. 겉으로는 유화한 빛을 보였으나 속으로는 같이 죽고자 하는 뜻을 품어 이불을 쓰고 음식을 끊고 죽었다. 안장할 때 시신이 들어 있는 널[柩]이 움직이므로 둘러서서 보는 사람들이 탄식하였다고 한다.

• 이씨(李氏)

명사(名士) 손현량(孫賢亮)의 처로 출가하여 남편 섬기기를 극진히 하였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몸가짐을 더욱 단정히 하여 의복을 검소하게 입고 이웃집에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청에서 이를 알고 삼베와 양식을 주었다.

• 이씨(李氏)

본관(本貫)은 경주(慶州)로 이규호(李圭豪)의 딸이고, 평해인(平海人) 황보현(黃寶鉉)의 처다. 시부모를 극진히 섬겼으며, 시모가 눈이 어두워지자 이씨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약을 사서 쓰니 효과가 있었고,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는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하니, 향리 사람들이 감탄하였다.

• 이씨(李氏)

선비 백중형(白重亨)의 처로 21세 때에 남편이 사망한 후 시부모 섬기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남편의 유언을 생각하며 통곡하던 밤에 뒤틸에 이름 모를 짐승이 와서 함께 슬피 울었다 한다. 또한 이씨는 항상 묘 앞에 가서 나무를 불들고 통곡하였는데, 그 나무가 결국 말라죽었다. 이에 유림에서 그의 행장을 관가에 올렸으나 표창은 받지 못하였다.

• 임씨(林氏)

본관(本貫)은 평택(平澤)으로 임지환(林之煥)의 딸이고, 영양인(英陽人) 남혁성(南赫晟)의 처다. 나이 19세에 출가하였는데 그 남편이 오래 묵은 병을 앓고 있었다. 병세가 날로 심하여지므로 좋은 약을 다 쓰고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빌면서 자기 몸을 대신할 것을 기원하였고, 원하는 음식을 공양하였으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상(喪)을 당하였다. 임씨도 같이 죽기

를 원하였으나 후계가 없었으므로 조카를 데려와 뒤를 이을 아들(양자)로 정하고, 평생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고 친가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칼과 노끈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자결할 것을 맹세하였고, 모든 규범이 남과 달라 문호가 크게 변창였으며, 수양(首陽) 오진태(吳震泰)가 지은 『현원전(賢援傳)』이 있다.

• 장씨(張氏)

본관(本貫)은 울진(蔚珍)으로 장전(張棟)의 딸이고, 첨정(僉正) 주호(朱皞)의 처다. 1593년(선조 26) 8월 임진왜란 때 부부가 같이 고산성 읍성을 지키다가 남편이 먼저 왜적에게 전사를 당하였고, 적이 장씨의 젖을 만지자 양 젖을 직접 칼로 잘라 땅에 던지고 꾸짖으며 죽으니, 왜적이 경탄하여 그 상황을 기록하여 여러 죽음과 구별하여 표시를 해 놓고 갔다. 조정(朝廷)에서 이 사실을 듣고 장씨의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정려(旌閭)를 명(命)하였다. 후에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永)이 『열녀기(烈女記)』를 지었으며, 현재 화성리 67-1에 정려각 [울진장씨 열녀각]이 남아 있다.

• 전씨(田氏)

본관(本貫)은 담양(潭陽)으로 금강송면 왕피리 전상구(田箱邱)의 딸이다. 시조부와 시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모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매일 세 번 눈바람을 가리지 않고 성묘하여 청소를 하니, 마을 사람들이 후손의 모범이 된다 하여 칭찬이 자자하였다.

• 전씨(田氏)

본관(本貫)은 담양(潭陽)으로 울진인(蔚珍人) 임학희(林學熙)의 처다. 그 남편이 옥(獄)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아침저녁으로 밥을 얻어 연명케 하다가 어느 날 까마귀가 옥을 향하여 울기에 전씨가 옥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 남편이 목을 매어 죽기에 이르렀다. 전씨는 즉시 입으로 노끈을 끊고 이빨로 손가락을 물어뜯어 그 피를 남편의 입에 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 그 후에도 이와 같이 구한 바가 있으며, 또한 꿈에 붉은 치마를 입은 부인이 이르기를 “내 마땅히 길을 가리키리니, 너는 곧 관가에 가서 호소하라.”라고 하기에 전씨가 관가에 가서 간곡히 호소하여 남편을 출옥케 하였다. 또한 남편이 술에 취하여 강가 초막(草幕)에서 졸고 있을 때, 근처의 들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옷깃에 불이 닿을 무렵 전씨가 가서 구출했다고 한다.

• 차씨(車氏)

효자 남태석(南泰錫)의 처다. 남편이 죽자 초상(初喪)부터 담제(禫祭)까지 지성으로 상례를 치른 다음 스스로 따라 죽으니 조정에서 그 사실을 듣고 정려(旌閭)를 명(命)하여 정려각

(旌閭閣)을 세웠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최씨(崔氏)

본관(本貫)은 경주(慶州)로 남평인(南平人) 문규현(文奎憲)의 처다. 집이 몹시 가난하였는데, 남편이 소(牛)병에 약으로 쓰려고 이웃집 호박 1개를 따 왔더니, 그 집 주인이 도적으로 모함하여 관(官)에서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 때에 집안에는 팔순(八旬)의 노모가 있었고, 최씨 또한 임신한 지 아홉 달이었다. 시노모가 크게 놀라 사경(死境)에 이르자, 최씨가 간곡히 위로하면서 “하느님이 살피시니 무고한 사람을 어찌 죽이리요.”라고 하여 안심시켜 놓고 곧 이웃집에 가서 목을 매어 죽으니, 남편이 옥에서 풀려나왔다. 최씨는 아홉 달 임부로 백속에 있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시어머니의 죽음을 막고 스스로가 다투어 죽으니 효가 아니고서야 어찌 가능하겠으며, 그 남편이 먼저 죽는 것을 두려워하니 이 어찌 열(烈)이 아니겠는가? 관(官)에서 밀하기를 “남편(文氏)의 삶은 그 삶이 슬프고, 최씨의 죽음은 그 죽음이 영화롭다.”라고 하였느니, 시모를 위함이 효(孝)요 그 남편을 위한 죽음은 열(烈)이었다.

• 최씨(崔氏)

본관(本貫)은 월성(月城)으로 김인권(金寅權)의 처다. 남편이 병으로 사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끊어 그 피를 입에 넣어 소생하게 하였다. 이에 향리 사람들이 모두 열녀라 하였고, 관에서 상을 주고 포상하였다.

• 황씨(黃氏)

효자로 이름난 장용단(張龍端)의 처로 남편이 죽으니 그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4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다가 뒤따라 죽으니, 관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상을 주고 표창하였다.

2) 근·현대

• 남씨(南氏)

본관(本貫)은 영양(英陽)으로 남재학(南載鶴)의 딸이고, 신안인(新安人) 주병즙(朱秉楫)의 처다. 19세에 출가하여 25세 때에 남편이 고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극히 궁핍한 가정에서 1남 1녀의 가족을 돌보고, 남편의 병에 대한 약을 구하며 5년 간 극진히 간호하였다. 결국 남편은 병을 이기지 못해 사망하였으나 열부의 도(道)를 다함에 향리에서 칭송이 있었고, 1939년 3월에 울진군수의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 장범곡(張凡谷)

본관(本貫)은 울진(蔚珍)으로 1886년 8월 5일 장병주(張秉柱)의 맏딸로 죽변면 화성리 범상골(凡祥谷)에서 출생하니, 천성이 온화(溫和)하며 강직하였다. 18세의 나이에 괴무[곽종목(郭鍾穆)] 처로 출가하여 가난한 살림에도 길쌈을 하며 가사를 돌보았고,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나라를 잃게 되자 독립운동을 통해 조국을 광복시키고자 남편을 따라 서간도 유하현 구산자(溝山子)로 이주하였으나, 남편이 31세에 일본군과의 전투 중에 전사하니, 남편의 유골을 고향 땅에 안장하기 위해 삼천리 험한 길을 반은 걷고, 반은 차편으로 이동하였다. 고생 끝에 고향에 당도하여 선영 아래에 안장하고 3년의 예(禮)를 다하였다. 1960년 3월 1일 울진교육감으로부터 부도정절(婦道貞節)의 공으로 열부상(烈婦賞)을 받았고, 문교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 장씨(張氏)

본관(本貫)은 울진(蔚珍)으로 장기한(張基漢)의 딸이다. 1917년 정명(正明)에서 출생하여 나이 18세에 전의인(全義人) 이종호(李鍾虎)의 처(妻)가 되었다. 남편이 중병에 걸리자 5년 간 병간호에 정성을 다했으나 효힘이 없어 별세하자, 3일 만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으니 그 때 나이가 24세였다. 이 사실을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 정절(貞節)을 칭찬하였다.

• 전씨(田氏)

본관(本貫)은 담양(潭陽)으로 전재남(田在南)의 딸이고, 신안인(新安人) 주진구(朱鎮九)의 처다. 어릴 적부터 어버이를 정성으로 공경하였고, 시가에 가서는 며느리의 도(道)를 중히 여기고 남편을 공손히 섬겼다. 남편이 병이 들어 위독하자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으나 결국 죽고 말았으니, 이를 애통해 하며 상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음식을 전폐하고 새벽마다 남편의 묘소에 가서 곡(哭)을 하였다. 그의 시어머니가 음식을 강력히 권하였으나 입에 넣는 시늉만 하다가 삼키지 않고 토하여 버렸다. 이로 인하여 17일 만에 따라 죽으니 사림(士林)에서 그 열(烈)을 가상히 여겨 1931년 10월 매화면 금매리 산7에 여각(閨閣)[담양전씨 열녀각]을 세웠다. 현판에는 열녀주진구처전씨지려(烈女朱鎮九妻田氏之閨)라고 적혀 있다.

• 전씨(田氏)

본관(本貫)은 담양(潭陽)으로 효자 전병겸(田炳謙)의 딸이고, 신안인(新安人) 주형중(朱衡中)의 처다. 어릴 때부터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매사에 지각이 있고 성품이 곧으며, 지조가 있었다. 출가해서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잘 받드니, 이웃과 마을에서 부덕(婦德)이 있다는 칭송이 자자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 남편이 출타하여 돌아오지 않아 그 화가 시아버지에게 미치자 그 화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 죽었다. 시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다함이라

하여 선비가 지은 글과 시가 있고, 또 경재(絅齋) 정연국(鄭然國)이 말하기를 “남편의 목숨은 하늘에 빌고 도적에게 항거한 맑은 몸이니 열(烈)이요, 시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다 하여 몸을 바쳐 죽으니 효(孝)이다.”라 하였다. 1995년 7월 31일에 성균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추서 받았으며, 『주씨부인유인효열록(朱氏婦人儒人孝烈錄)』이 있고, 중국의 『고정자양주씨(考亭紫陽朱氏)·종보·효열록』에도 등재되었다. 중국 주자학회장 양청(楊青)이 찬한 「정덕비명(旌德碑銘)」이 있다.

• 흥씨(洪氏)

본관(本貫)은 남양(南陽)으로 홍응섭(洪應燮)의 딸이고, 선비인 안동인(安東人) 김원진(金源鎮)의 처다. 시부모를 극진히 섬겨왔으며, 남편이 병이 들어 위독해지자 자신이 대신할 것을 하늘에 빌었으며, 자기의 손가락을 끊고 주혈(注血)하여 병을 낫게 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또다시 병이 들어 결국 사망하니, 같이 죽고자 하였으나 시부모를 위하여 죽지 못하고 종신하였다. 1904년(광무 8)에 조정에서 정려(旌閨)를 명(命)하였고, 달성인(達成人) 서신보(徐臣輔)가 기(記)를 지었으며, 현재 기성면 삼산리 산 72에 정려각[남양홍씨 열녀각]이 남아 있다.

• 황씨(黃氏)

본관(本貫)은 평해(平海)로 황치운(黃致運)의 딸이고, 경주인(慶州人) 최태희(崔泰熙)의 처다. 시부모를 섬기기에 정성을 다하였고, 시집온 다음 해에 남편의 병이 위독하였으므로 항상 맑은 물을 길어다가 하느님께 빌면서 자기를 대신할 것을 청하였다. 황씨가 정성을 다하여 구호하였으나 남편의 병이 낫지 않고 결국 죽고 말았으니 애통함이 지극하였다. 뒤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시부모의 위로로 마음을 바꾸었으며, 이후 10여 년을 검소한 옷을 입고 지냈다. 1888년(고종 25) 10월 어느 날 의(義)를 죽여 죽기를 맹세하고, “남편과 같이 따라 죽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살아온 것이 한이라.”라고 한 후 음식을 전폐한지 수일 만에 죽었다.